

스튜디오 드래곤 X 쇼러너스 X 문화창고  
2023 하반기 드라마

연출 장영우, 김희원 | 극본 박지은  
김수현 김지원



tvN  
눈물의  
여왕

"본 제안서의 내용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자산이며, 비공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 배포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 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 품 개 요

---

작 가 소개 & 감 독 소개

---

드 라 마 소개 & 줄 거 리

---

인 물 소개

---

협 찬 내 용

---

연 락 처

---

# 개요

제 목	눈물의 여왕
편 성	tvN 드라마 (16부작)
방 영	23년 하반기 예정
연 출	장영우 (tvN '불가살', NETFLIX '스위트홈', tvN '사랑의 불시착', tvN '미스터 션샤인' 등) 김희원 (tvN '작은 아씨들', '빈센조', '왕이 된 남자' 등)
극 본	박지은 (tvN '사랑의 불시착', SBS '푸른 바다의 전설', KBS2 '프로듀사', SBS '별에서 온 그대' 등)
제 작	스튜디오드래곤, 쇼러너스, 문화창고
마케팅 총괄	TAKE MEDIA GROUP
출 연	김수현, 김지원 외
줄 거 리	안하무인 여왕과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남자의 3년 후 이야기. 싸늘하게 마음이 식어버린 남자가 이혼을 결심한 순간, 부부에게 찾아온 아찔한 위기,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에 관한 블랙코미디 멜로극



# 흥행 포인트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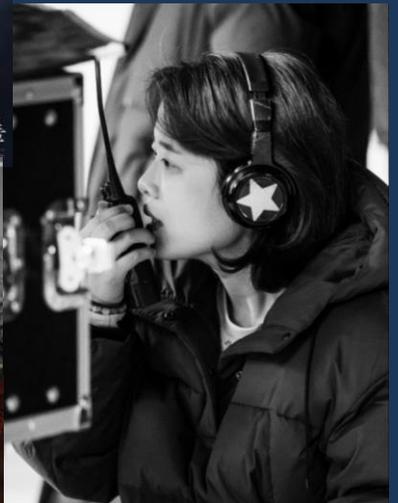
글로벌 신드롬의 주역  
극본 박지은



섬세한 상상력  
연출 장영우



감각적인 연출  
연출 김희원



# 줄거리

## 작품소개

### <눈물의 여왕>은

안하무인 여왕과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남자의 3년 후 이야기.  
싸늘하게 마음이 식어버린 남자가 이혼을 결심한 순간,  
부부에게 찾아온 아찔한 위기,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에 관한 블랙코미디 멜로극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부자가 아닌 적이 없었던  
**어나덜월드의여왕.**

해인은 뱃속까지 재벌인 재벌 3세대.

아름다운 여왕의 남자가 되고 싶은 수많은 후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남달랐고 조금은 뜬금 없었다.

무려 용두슈퍼마켓집 아들이라니.

남자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여왕의 간택을 받았다.

그리고 3년 후.

**재벌가로시집(!)간이남자는  
심각한딜레마에빠져버렸다.**

이 여자와 계속 살자니 짜증나고 답답하고 매순간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다고 안 살자니 걸리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이혼 후 내 인생과 더불어 우리 엄마 아버지의 노후, 캐나다로 유학 간 조카의 운명,  
대한민국 미혼남과 기혼남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땡 잡은 남자’라는 힙한 타이틀. 이런 거 싹다 엉망 되는 거다.

하지만 두 번도 아닌 인생, 이렇게 목 졸려 살다 갈 순 없다고 생각한 남자.  
마침내 이혼을 선언하려고 하는 순간,  
**부부에게생각지도못한위기가찾아온다!**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난 어떡하라고!

흥행의 대명사

김수현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쿠팡플레이 '어느날'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KBS2 '프로듀사'  
SBS '별에서 온 그대'



나밖에 모르는  
이남자. 당신  
을 어떻게 놓  
고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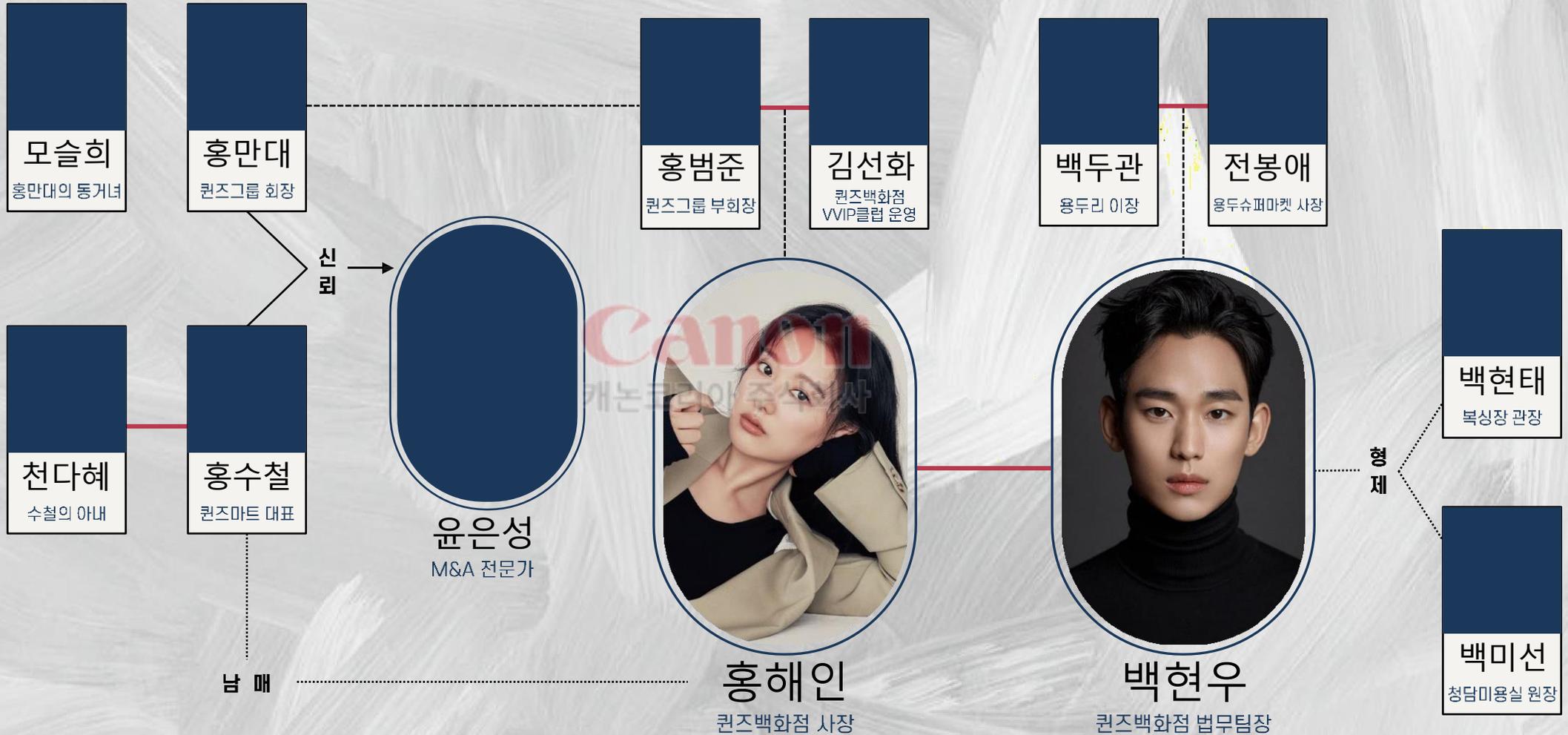
여왕으로 변신한

김지원



JTBC '나의해방일지'  
카카오TV '도시남녀의 사랑법'  
tvN '아스달 연대기'  
KBS2 '쌈, 마이웨이'

# 인물관계도



## 캐릭터 소개



cast. 김수현

## 백현우 35세. 퀸즈그룹 법무이사/ 퀸즈백화점 법무팀장

서울대 법대에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스마트한 두뇌에 본투비 재벌보다 더 재벌스러운 비주열.**

벳 히스 프롬 용두리. 그가 결혼할 때 마을 사람들은 요새는 재벌 회장이 왕이니

옛날 같으면 우리 현우가 부마가 된 거라면서 자기 일처럼 자랑스러워했다.

유명한 왕도 많고 왕비도 많고 후궁도 많고 공주도 많다. 그런데 유명한 부마가 있던가?

무소불위 권인 해인은 일단 무슨 말을 하든 명령조다.

그딴 거 먹지마. 저딴 거 입지마. 이거 먹어. 저거 입어.. 식이다.

기념일에 선물을 했더니, 오그라드니까 그런 거 챙기지 마.. 라고 하길래

이번엔 안 챙기고 조용히 넘어갔더니, 또 뭐라고 한다.

내가 죽으라면 죽을거야? 말을 좀 가려서 들어! 라며..

한때는 사랑한다고 믿어서 결혼했다. **하지만 3년 후 그는 이혼을 꿈꾼다. 간절히**

이혼 생각은 굴뚝같은데 피를 나는 가족들마저 자분의 단맛에 길들여져선지

혹시 현우 입에서 헤어진다 소리 나올까봐 전전긍긍이다.

우린 뭐 다 맨날 사랑해서 사는 줄 아냐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결혼이고 또 인생이라며..

그래도 이대로 살다 죽을 순 없었다. 지구 종말이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여자가 해인만 남은 것도 아닌데 나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해인에게 들은 충격적인 소식.**

그 이후, 현우는 미처 몰랐던 해인을 만난다.

**그리고 제대로 사랑하게 된다. 첫사랑처럼.**

## 캐릭터 소개



cast. 김지원

## 홍해인 35세. 퀸즈그룹 상무이사/퀸즈백화점 사장

스쿼트 할 때 빼곤 평생 **무릎 한번 굽힐 일 없이 살아온 도도한 여왕.**

오로지 남들한테 명령하기 위해서 입술 두 쪽 달고 태어난 것 같은 절대 군주.

**강남 한가운데 성처럼 고고히 솟아 있는 퀸즈백화점의 여주인이다.**

그녀의 신조는 '안되는 게 어딴냐? 안하는 거지!'다. 자긴 늘 하면 됐으니까.

타고난 머리와 촉이 좋아 별 다른 노력 없이도 명문대 입학과 졸업을 어렵지 않게 해냈고 백화점 사장이 된 후 입점 브랜드 고를 때도 무슨 아이스크림 맛 고르듯 애랑 애 그리고 재, 이렇게 성의 없이 툭툭 찍는데 희한하게 또 그게 다 잘 됐다.

그녀가 밟는 발걸음 마다 신의 편애가 가득한 축복들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쏟아졌다.

다 가진 자에겐 겸손도 위선이라 생각했던 그녀는 마음껏 거만하고 더 건방져졌다.

할아버지 엄명으로 입사시험 보고 인턴 됐을 때 옆 팀 신입 현우를 만났다.

그는 뻑하면 그녀를 비상계단으로 불러냈고

지도 신입인 주제에 홍해인씨 그런 식으로 회사생활 하면 안 된다고 충고를 했다.

해인은 현우가 저 신경 쓰는 게 어쩐지 재밌고 기분 좋아서 복사기를 더 세게 발로 찼고

그럴수록 비상계단에 불러 가는 일도 잦아졌다. 급기야 현우는 프로포즈도 거기서 했다.

해인과 현우가 결혼할 때 뒤통도 모르는 인간들은 뒤에서 쑥덕였다.

여자는 남자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거고 남자는 여자 돈만 보고 하는 거라고.

해인은 너무 열받아서 신문에 자기 얼굴 모자이크 하지 말고 다 까라고 했다.

지들도 내 얼굴 보면 딱 알거야. 백현우는 딴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본 거라고!

**그녀에게 인생은 아름답고 친절했고 무조건 내 편이었다.**

**그래서 더욱이 현우와의 이별은 예상하지 못했다.**

## 캐릭터 소개



cast. 박성훈

## 윤은성 34세. M&A 전문가

### 월가 애널리스트 출신 M&A 전문가.

알만 한 사람들 사이에선 될 투자, 안될 투자 점쟁이 뺨치게 잘 찍어주는 투자가로 유명.

족집게 과외 선생들 없으면 대학원 논문도 쓸 줄 모르는 재벌3세들에게 구세주인 셈.

은성이랑 저녁 한끼 먹겠다고 뉴욕까지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들끼리 만든 사모임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명분으로 거액을 주고 초청해

투자 정보를 캐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결혼은 했는지 현재 자산은 얼마지

가끔 한국에 드나드는 이유는 뭔지 등등 사생활에 대해선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래서 더 궁금하게 했다.

### 그런데 그가 퀸즈와 인연을 맺게 된다.

어떻게든 지 누나 이겨보고 싶어 하는 해인 동생 수철이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서

그를 만났고, 엄청나게 공을 들인 끝에 그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은성이 만든 펀드에서 대규모 직접 투자를 받게 된 것이다.

홍만대 회장이 수철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리라.

홍회장은 은성을 환대하며 이사의 직함을 주었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이는 문 앞을 서성이고 있는 뱀파이어에게

들어오라고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인 위험한 결정이었다.

## 캐릭터 소개



cast. **곽동연**

## 홍수철 퀸즈그룹 전무이사/ 퀸즈마트 대표

### 해인의 남동생.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마음속에 중2쯤 되는 소년이 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기가 어마어마한 누나한테 거의 짓밟히다시피 하며 성장했다.  
다 커서도 누나랑 눈만 마주치면 자기도 모르게 가드부터 치며 왜! 뭐!! 괜히 성질낸다.  
현우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존경한다. 나 같으면 못살아.. 무서워서..  
이상형도 어렸을 때부터 딱 하나였다. 홍해인이랑 정반대면 돼. 난 그거면 돼..  
다행히 그런 여자를 찾았고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서민 친화 컨셉의 SNS 중독자.

SNS 속에서 그는 세상과 소통하는 오픈마인드의 유머러스한 재벌3세대.  
뭐 좀 소탈한 사진 하나만 올려도 사장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재벌만 있으면  
세상은 살만할 거란 선플들이 쏟아진다.  
그 말에 호응하려다 보니 착한 척 하는 게 점점 심해진다.  
아메리카 정벌한 백인들이 원주민 문화에 흥미를 갖는 것처럼  
서민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다. 서민들이 먹는 소탈한 음식, 서민들의 소박한 지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취한다.  
이 집안 통틀어 선민의식 1등을 꼽는다면 단연 수철이다.  
그에게는 뜨거운 소망이 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행하는 많은 선행들을 모두에게 들키고 싶다는..

## 캐릭터 소개



cast. 이주빈

## 천다혜 수철의 아내

### 수철의 아내.

미인도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비주얼.

수철의 말 같지도 않은 농담에 일일이 반응하며 웃어주고 꼭두새벽 조찬에도 누구보다 완벽하게 단장하고 가장 먼저 나타나 시할아버지인 흥회장을 흐뭇하게 한다.

예의도 바르고 시사 상식에도 밝으며 젊은 애가 어떻게 저런 걸 알까 싶은 이슈에도 막힘이 없이 박학다식하다. 서던 일리노이대 교수였던 부모님이라든가 유서 깊은 학자 집안이라든가 하는 배경도 어른들이 그녀를 예뻐하게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 하지만 그녀의 실상은 다르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오선영.

미국에서 온 건 맞지만 파양된 입양아에 호스티스 출신. 나이도 다섯 살 내렸다.

연상 극혐하는 수철이 이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레이스 고의 철저한 설계 아래 만들어진 캐릭터를 받아서 연기연습 하듯 연마했고

가짜 부모와 함께 귀국 후 수철을 만나 결혼까지 성공했다.

속물근성과 인정욕구 강하고 해인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 피질한 수철 정도 컨트롤 하는 일은 그녀에겐 껌이었다.

원래가 야행성이라 새벽 시간 조찬에 시간 맞춰 가는 일도 어렵지 않았다.

다만 술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상을 정리하려고 하거나 얼음을 나누거나 병을 숨기는 등의 옛날 버릇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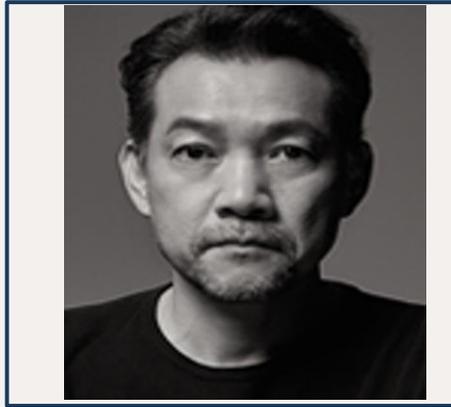
cast. 김갑수



**홍만대** 해인할아버지/퀀즈그룹 회장

노욕의 화신. 돈만 있으면 귀신도 멧돌을 갈게 한다가 인생의 신조.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특기. 엘리베이터가 25층에서 1층에 내려갈 때까지 자신을 설득해 보라고 한 후 뒷에 든 쥐처럼 몰아가 상대가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즐긴다. 백하면 '물러나겠다' 선언한 후, 그걸 말리는 놈과 말리지 않는 놈으로 나눠 충성심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큰아들 범석이 거기에 말려들어서 팽 당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심이 더 많아지고 사람을 잘 못 믿게 된다. 자기애가 강한 만큼 건강에도 엄청나게 집착한다. 21세기의 진시황을 꿈꾸며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하는 편. 그런데 참.. 웃을 일이 없다.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이렇게 이룬 게 많은데... 왜 웃을 일이 없을까.

cast. 정진영



**홍범준** 해인아버지/퀀즈그룹 부회장

성우 뺀치게 좋은 목소리로 늘 옳은 말만 하는데 자세히 들으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재벌 아들로 태어났지만 기본 성정이 싸움 싫어하고 권력욕도 많지 않은 편. 절대 자식들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와 죽어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형 범석을 보며 자랐다. 형 범석이 쿠데타에 실패해 하와이로 쫓겨나고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는데 후계자 자리에 올랐다. 범준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고, 가정을 이룬 후 매우 충실한 가장이 되었다. 자식들, 특히 해인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해인 결혼 후엔 세상 둘도 없는 진보주의자가 되어서 명절에 시댁 먼저 가라는 건 누가 정한 거냐.. 설교한다. 그런데 며느리는 친정 못 가게 잡아둔다. 내로남불의 화신.

cast. 나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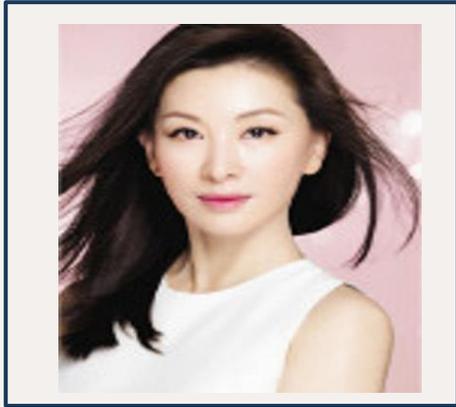


**김선화** 해인어머니/퀀즈백화점VP클럽운영

80년대 미스코리아 출신. 그녀 못지않게 지극히 속물적이었던 그녀의 친정 어머니는 주식투자하듯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따져 혼처를 정했다. 그 중 셋째 딸이었던 선화만 책꽂이 터졌고 다들 선화의 도움으로 중산층 수준 이상은 유지하며 산다. 물론 그냥 쿨하게 도와주지 않았다. 번번이 생색내고 자랑하고 설교하며 각쟁이짓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선화 쪽 빼고 지들끼리 밥 먹고 여행하고 그러고들 있다. 왜 내 도움은 다 받아놓고 날 왕따시키는 건지 어이없었지만 상관 않기로 했다. 다 부럽고 샘나서들 그러는 거지... 내 인생이 너무 퍼펙트 하니까! 사위 빼고.. 해인 결혼 스토리 나오면 뒷골이 땡기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나뉘던 해인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

"본 제안서의 내용은 스튜디오드래곤의 자산이며, 비공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 배포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 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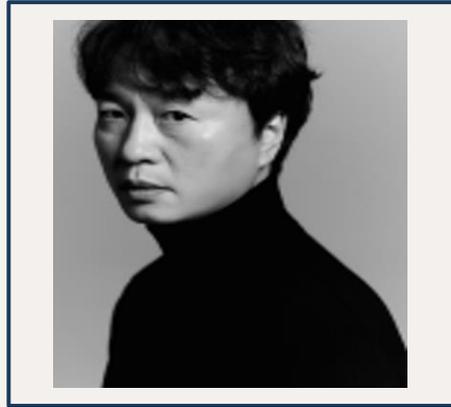
cast. 이미숙



**모슬희** 홍만대의 동거녀

30년째 홍만대 회장과 살고 있는 동거녀. 긴 세월동안 정식으로 결혼을 해달라거나 내 뉘스로 뭘 달라는 요구를 해 본 적이 없다. 간간한 홍회장도 30년이란 세월로 보여준 모슬희의 진정성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말수가 적고 검소하며 유일한 취미는 외부로 나가서 하는 마음 수련 정도. 시간 날 땐 밥차에서 봉사를 하거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 도시락 배달 일을 했다. 보다 못한 홍회장이 복지재단을 차려 주며 당신 좋아하는 봉사 실컷 하라고 독려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대외적 이미지는 퀸즈의 마더 테레사. 주변 사람들은 '홍회장 죽기 전에 호적문제는 정리를 해라, 충고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저는 호적 같은 데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100프로 진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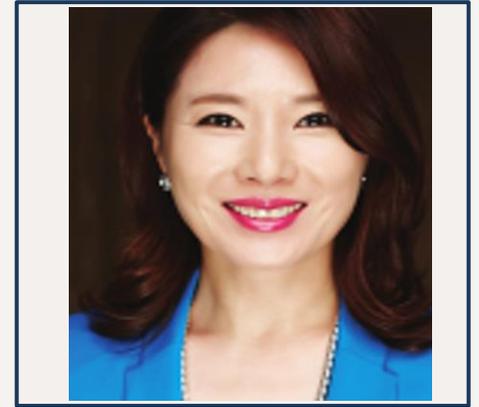
cast. 전배수



**백두관** 현우아버지/용두리아장

현우가 퀸즈의 사위가 된 후, 마을회관 보수라든가 애들 장학금이라든가 여러모로 마을을 이롭게 한 공을 인정받아 이장 자리에 올랐다. 어디 가나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 쳐 주고 이장님 이장님 하며 상식에 방석 깔아주고 맞아주는 게 그렇게 흐뭇하고 좋다. 이 나이에 완장차는 거 피곤하다고 말로만 그러면서 벌써부터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붕 수리하는데 뜬금없이 블루하우스를 연상시키는 푸른색으로 색을 칠한 것도 다 두관의 큰 그림이요 밑밥인 것이다. 이장이 됐으니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데... 물 좋고 산 좋지만 딱히 특산물은 없는 평범한 마을 용두리에서 수익성 좋은 사업이 무엇일지 고민이 많다.

cast. 황영희



**전봉애** 현우어머니/용두슈퍼마켓 주인

작은 평상이 놓인 점방인 용두 슈퍼마켓의 주인이자 마을 최고의 농부. 용두리에서 나고 자라 동네 오빠인 두관과 결혼한 이후 이 마을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다. 가게 일 뿐 아니라 논일 밭일 과수원 일에 집안일까지 모두 봉애가 다 한다. 그냥 그게 속 편하다. 트랙터를 능숙하게 몰며 마을 한 가운데를 질주할 땐 용두리 원더우먼이 따로 없다. 작은 건물 셀 틈 없이 아끼다가 큰 거 쓸 땐 의외로 장군처럼 배포가 큰 여인. 리 단위 시골에서 평생 살았지만 편견 없고 합리적인 마인드라 웬만한 도시 사람보다 더 세련된 인물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며느리를 얻어서 얼마나 좋으시냐고들 하는데 그녀로선 막 좋기만 한 건 아니다. 나름대로 불편한 점도 많다.

"본 제안서의 내용은 스튜디오드래곤의 자산이며, 비공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 배포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 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찬제안

내용

- 협찬제안내용 : 현우&해인 데이트 장면과 현우 영상편지 장면 사용
- 협찬제안품목 : 카메라
- 입고처 : 경기도 파주 CJENM 스튜디오센터
- 입고일 : ~12월초
- **홍보대행 수수료없이 "제품증정협찬"으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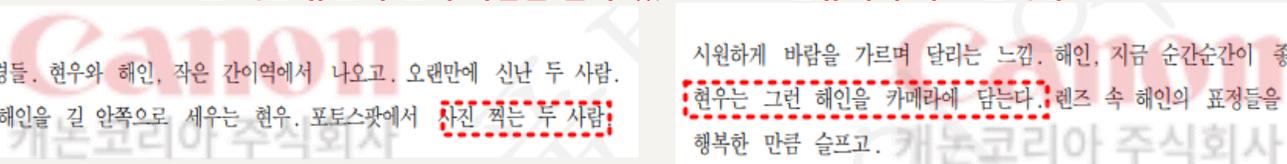


**\*본 대본 유출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

#19 간이역 (D)

맑은 하늘. 예쁜 가을 풍경들. 현우와 해인, 작은 간이역에서 나오고. 오랜만에 신난 두 사람. 자전거가 지나가면 열린 해인을 길 안쪽으로 세우는 현우. 포토스팟에서 **사진 찍는 두 사람.**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느낌. 해인, 지금 순간순간이 좋고 소중하고. **현우는 그런 해인을 카메라에 담는다.** 렌즈 속 해인의 표정들을 보는 현우. 행복한 만큼 슬프고.



"본 제안서의 내용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자산이며, 비공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배포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 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사항

및

담당자

[노출 및 제공사항]

\*현재 눈물의여왕은 자료제공 협의중입니다.

- 1. 방영 후 귀사의 제품 세팅컷 자료제공
- 자사몰 홈페이지 협찬 카테고리화
- 공지사항에 사용가능 \*그 외 사용불가

[기대효과]

협찬 제품의 특성을 살려 조화로운 배치로 대중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짐으로써 한층 더 높은 구매욕구충족과 각인효과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방송 미술 산업의 발전과 높은 퀄리티를 제공함으로써, 귀사의 이미지제고에 높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회사

피어컴퍼니

주소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40-28 비잔티움 2단지 220호

전화

031-901-3595

담당자

이동원 사원

T. 010-8705-6047

E. chelshy0117@@daum.net



"본 제안서의 내용은 스튜디오드래곤의 자산이며, 비공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 배포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 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X 쇼러너스 X 문화창고

"본 제안서의 내용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자산이며, 비공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 배포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 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어컴퍼니

최근진행작

< 방과 후 전정활동 1화 > tiving" 방과 후 전정활동

지원사원: 김수현, 김지원

kbs "법대로 사랑하라"

tvn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SBS "법전"

Tvn "월수금 화목토"

jtbc "사랑의 이해"

SBS "소방서 옆 경찰서"

tvN "우리들의 블루스"

SBS "치얼업"

스튜디오 드래곤 X 쇼러너스 X 문화창고  
2023 하반기 드라마

연출 장영우, 김희원 | 극본 박지은  
김수현 김지원



tvN

# 눈물의 여왕

T H A N K Y O U

"본 제안서의 내용은 스튜디오드래곤의 자산이며, 비공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게시, 배포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 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